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 : 경험적 자연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Paracelsus's Mystical View of Knowledge and Its Relation with His Empirical Study of Nature

YI Bohm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aracelsus(1493-1541) was a doctor, alchemist and philosopher who was born in Switzerland and lived wandering all around Europe. He founded a new medical-chemical-physiological doctrine in opposition to the Galenian medical-physiological system which had dominated university-educated physicians and apothecaries. Preparations of mineral medicines were very important to Paracelsus, so he is regarded as the founder of iatrochemistry. Paracelsus is said to have been in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magic and science. He had a sort of mystical view of knowledge, being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various ancient mystic philosophers (especially Neo-Platonic, Gnostic and Cabalistic). He considered the human experience (*experientia*) as the interaction between macrocosm and microcosm (man). This interaction, occurring between each part of macrocosm and its equivalent part of microcosm, was called 'correspondence'. He observed that the true knowledge of nature can be obtained only through the experience(correspondence), and it cannot be transmitted or educated through the written language.

Most studies on Paracelsus interpreted this mystical view of knowledge as the main obstacle in his way to the modern science. But closer investigation of his writings shows not only phrases arguing that the transmission of true knowledge through the written language is impossible, but also those arguing that people should read books, such as his own, which contain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e experience(correspondence). After his school days, He spread his theory and prescriptions mainly through printed matters circulated outside universities. And although the standard language among European intellectuals at that time was Latin, and he had a good command of Latin, he wrote his works in German so that more people could under-

stand his works easily. Not only did he write in the vernacular, but he wrote his preparations and prescriptions very clearly and quantitatively.

Such evidences undermine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 that Paracelsus denied the communicability of knowledge through the written language owing to his mystical view of knowledge, and so he was at most a half-modern scientist. But we can estimate his view of knowledge properly only when we consider his position in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ontext of that time.

Paracelsus's view of knowledge existed in the form of a specific discourse, encouraging and legitimizing empirical studies on nature. If the true knowledge can be obtained only by empirical studies, the whole scholastic-humanistic methodologies including logic, rhetoric, and literature study was to become valueless. His view of knowledge entailed such a strong anti-university intellectual tradition. According to it, popular knowledge could rise to the status of 'philosophy' if it is obtained through experience (correspondence). He argued that a thorough reformation was required, not only in the content of book, but also in the social mode of existence of knowledge. Indeed, Paracelsian view of knowledge was never accepted by universities and scientific societies after his death, while Paracelsian chemical theory was accepted since late sixteenth century.

Regarding Paracelsus's view of knowledge as the legitimizing discourse which had no direct connection with the content of his medical-chemical theory, we can explain the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Paracelsus who had a mystical view of knowledge distrusting the written language and Paracelsus who wrote and published a lot of books containing clearly described preparations and prescriptions. Paracelsus not only tried to displace the Galenian system with his own, but intended to reform the mode of social existence of knowledge, confronting the intellectuals around universities. His mystical view of knowledge should be understood not as the evidence of his pre-modernity, but in relation to the prevailing discourse which antagonized his new legitimizing discourse.

근대과학의 성립기에 여러 학자들은 자신의 활동과 이론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 글은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정당화 담론을 수반한 중요한 사례로서 파라켈수스의 자연 연구와 신비주의적 지식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은 단순히 그의 전근대성의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글은 그의 지식관이 대학을 중심으로 하던 지식의 존재양태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고 있었으며, 폄하되고 있던 민간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구축된 그의 의학·화학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논거였음을 보일 것이다. 이는 근대과학의 성립 과정에서 자연에 관한 지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되어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차원에서 격렬한 투쟁이 나타난 극적인 사례이다.

1. 머리말

(1) 파라켈수스의 이론과 활동

파라켈수스(Paracelsus : 1493-1541)는 스위스의 아인지델른 지방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한 의사이자 연금술사로서, 중세 이래 서구 의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갈레노스(Galenos : AD 138-201)의 생리학·의학 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구성하여 의학과 화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¹⁾ 그는 체내에 존재하는 네가지 體液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데서 질병이 비롯된다고 본 고대 그리스-로마 이래의 질병관에 반대하여, 질병은 몸의 외부로부터 病原이 침입함에 따라 일어난다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광물성 의약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의약 제조를 위한 화학적 기법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화학 관련 저술들 가운데에는 광물학이나 야금술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의약 제조에 목적을 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17세기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친 醫化學(iatrochemistry)의 선구자로 꼽힌다.²⁾

또한 파라켈수스는 불, 흙, 공기, 물 등 네가지 질료에 기초를 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이론에 대항하여 황, 수은, 鹽 등 세가지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화학이론을 구성하였다. '원리'(principle)란 대상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대상에 내재하는 기능 또는 성질을 일컫는 용어로서, 이를테면 가연성은 황에 해당하고 휘발성은 수은에, 불활성은 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물에는 그것의 성질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황, 수은, 염이 들어있는 것이다. 파라켈수스는 이 '원리'를 질료보다 일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원리들이 질료라는 母胎(matrix)에서 작용함에 따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계의 각종 변화들—— 화학적 변화, 생물의 성장 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파라켈수스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갈레노스의 체계를 대체할 대안을 고안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처방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였던 것이다. 당시

- 1) 파라켈수스의 본명은 Theophrastus Philippus Aureolus Bombastus von Hohenheim이다. 아버지가 몰락한 귀족의 庶子였으나 귀족계층의 명명법에 따라 본명이 지어졌다. 파라켈수스는 스스로 지어 붙인 이름으로서, 로마시대의 名醫인 켈수스(Celsus)를 능가한다는 의미이다. 파라켈수스의 생애와 그의 이론, 사후에 미친 영향 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문헌들로 Walter Pagel, *Paracelsus: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Medicine in the Era of the Renaissance*, 2nd ed. (Basel : Karger, 1982); Henry M. Pachter, *Paracelsus: Magic into Science* (New York : Henry Schuman, 1951); Allen G. Debus, *The Chemical Philosophy: the Paracelsian Science and Medicin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2 vols. (New York :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7); Allen G. Debus, ed., *Science, Medicine and Society in the Renaissance*, 2 vols. (New York :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2); Owen Hannaway, *The Chemists and the Word: the Didactic Origins of Chemist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chaps. 1-3; Lester S. King, *The Growth of Medical Though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chap. 3; Robert P. Multhauf, *The Origins of Chemistry* (London : Oldbourne, 1966), chaps. 9-11 등이 있다. 그밖에도 수많은 의학과 화학사 책들이 파라켈수스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 2) 의화학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파라켈수스의 화학이 주로 의학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파라켈수스 이후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의사들이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광물성 의약의 제조를 선호하였으므로 '의화학자'라고 불렸다.

유럽사회의 의학은 内科醫와 藥劑師로 대표되던 공식적인 의료계의 의술과 제도화되지 않은 민간 의술로 나뉘볼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대부분의 질환에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파라켈수스의 처방이 종종 그에 대한 비판자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보이자, 처방과 더불어 그 처방의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 그의 이론 전체가 대단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파라켈수스의 이론과 처방이 형성된 과정은 매우 독특하였다. 즉 그의 이론과 처방은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공식적인 의료계와의 절연, 민간의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처방이건 직접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그의 끈질긴 경험연구의 복합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는 촌락 의사이자 광산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소년기부터 의술과 광물학에 조예가 있었으며, 10대 시절에 유랑학생으로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여러 대학들에서 교양과목과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공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수되던 전통적인 지식의 가치에 대한 의혹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때의 실망감을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³⁾ 특히 한때 軍醫로 활동하면서 군 내에 퍼진 전염병을 전혀 예방·치료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크게 낙망하였다. 이같은 경험들은 당대까지의 의학에 대한 불신을 크게 증폭시키고 그를 결정적으로 민간의학에 접근시켰다.⁴⁾

학창시절 이후 그는 거의 평생동안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민간의 외과의, 산과, 주술사 등으로부터 지식을 수집하였고, 종종 왕이나 영주의 후원을 받는 연금술사와 교류하거나 광산에서 광물학, 야금술 등을 연구하는 데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의 처방 가운데에는 당시 유럽에서 갑자기 나타나 창궐한 매독의 치료제, 광부의 직업병에 대한 치료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거의 대학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쓸모없는 지식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늘 대학을 공격하곤 하였다. 유일한 예외로서 1527년에서 1528년에 걸쳐 바젤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지만, 이것도 바젤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카톨릭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던 바젤 대학과의 중재를 기대하여 市醫의 자격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도록 주선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때도 파라켈수스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의학을 설파하기에 바빴다. 이미 유명해진 그의 치료술 때문에 강의는 꽤 인기있었지만, 결국 그는 강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바젤의 의사 및 약종상들로부터 정치적 모함을 받아 바젤로부터 추방당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의사들과의 알력으로 인해 활동하던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일은 그의 일생에 걸쳐 여러번 반복되었다.

그의 이단성과 급진성은 의학 및 화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신학 사상은 카톨릭으로도, 프로테스탄트로도 분류하기 힘든 독특한 것이었는데, 농민전쟁기에 형성된 급진적 평등주의 교파인 재세례파(Anabaptists)와 유사하였다.⁵⁾ 그는 농민전쟁기에 평등사상과 종말사상——최후의 심판과 至福千年의 임박을 믿는——으로 무장한 봉기자들에 동조하여 선동적인 설교를 하거나 부상자 치료, 도시-농촌간의 연락 등의 활동을 펴다가 잘츠부르크에서 붙잡혀 처형당할 뻔하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모로 주변의 이목에 아랑곳하지않는 반항아였고,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실천가였다.

3) Pachter, *Paracelsus*, p. 35.

4) 같은 책, chap. 5.

5) 같은 책, pp. 99-109.

(2) 파라켈수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

파라켈수스는 의학사와 화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인정받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개의 과학사학자들이 파라켈수스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의 이론과 활동이 얼마나 근대과학에 접근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파라켈수스는 특히 '마술적'이라는 이유로 폄하되곤 하였다. 그는 신플라톤주의, 그노시스주의, 카발라 등 15-16세기에 크게 유행한 여러 신비주의적 사조에 영향받아 마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신비주의적 사조들의 영향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파라켈수스는 마술의 세계에, 혹은 '마술과 과학의 전이지대'에 있는 인물로 묘사되곤 하였다.

마술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폄하하는 기존의 평가는 예이츠(Frances A. Yates)에 의해 비판받았다. 예이츠는 1964년부터 펴낸 일련의 저작들을 통하여 근대과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르네상스 신비주의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 그녀는 근대과학의 형성이 르네상스기 자연마술을 연구한 마술사들에서 장미십자회(Rosicrucian)로, 그리고 장미십자회에서 17세기 과학학회들로의 두 단계에 걸친 전이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근대과학의 형성에 미친 마술과 신비주의적 사조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파라켈수스로 대표되는 장미십자회 유형의 마술사들은 르네상스기에 팽배했던 유토피아주의에 깊이 영향받아 정치적으로 급진화·박애주의화된 집단으로서, 예이츠는 이들이 유용한 지식을 산출해 내고 이를 통해 하층계급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같은 태도가 다소의 변형을 거쳐 베이컨주의로 대표되는 영국 왕립학회 등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이츠의 이같은 주장은 술한 논란을 낳았으며, 엄밀하게 보아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⁷⁾ 어쨌든 논쟁 과정에서 과학혁명의 주역으로 평가받던 베이컨,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하비, 뉴턴 등이 가지고있던 마술적 신비주의적 측면들이 연구됨으로써 과학혁명에 대한 기존의 상은 상당히 교정되었으며, 아울러 파라켈수스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⁸⁾

그러나 예이츠에서 비롯된 수정주의적 입장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이츠는 르네상스기에 팽배한 마술적 세계관이 근대과학을 예비하는 단계였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술적 세계관에 대한 기존의 경멸적인 평가를 전복하였다. 하지만 '과학과 마술'이라는 기본적인 좌표설정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단지 그 좌표 위에서 근대과학과 마술 사이의 거리가 이전보다 가깝게 설정되었을 뿐이다. 이같은 한계는 파라켈수스에 대한 평가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데, 많은 논자들은 파라켈수

6) Frances A. Yates, *Giordano Bruno and the Hermetic Tradit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Yates, "The Hermetic Tradition in Renaissance Science", Charles S. Singleton, ed., *Art, Science and History in the Renaissance*(Baltimore, 1968) (국역 "르네상스 과학에서의 헤르메티즘 전통", 김영식 역음, 『역사 속의 과학』, 창작과 비평사, 1982); Yates, *The Rosicrucian Enlightenment*(London, 1972).

7) 논쟁 과정에 대해서는 Charles B. Schmitt, "Reappraisals in Renaissance Science", *History of Science* 16 (1978); Brian Vickers, "Introduction", Vickers, ed., *Occult and Scientific Mentalities in the Renaissan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5 참조. 이 논쟁을 포함하여 16-17세기 마술과 과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범, "르네상스근대초의 마술과 과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5권 제1호(1993), 97-115쪽을 참조할 것.

8)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술로 Charles Webster, *From Paracelsus to Newton: Magic and the Making of Modern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가 있다.

스의 知識觀에서 드러나는 전근대적이고 마술적인 성격을 근거삼아 그를 단순히 마술과 과학, 또는 전근대와 근대의 轉移期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결국 예이츠 이후의 논란은 파라켈수스의 양면성——마술적 성격과 과학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⁹⁾

이 논문은 '과학과 마술'이라는 좌표 위에서 파라켈수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파라켈수스가 마술적이라고 불리우는 주된 근거가 되는 그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이 당대의 지적·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을 일단 그의 의학 및 화학 이론과 방법론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것이다. 이같은 방법론적 구분은 과학사자들이 17세기 이후 '근대'과학자의 체계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과학사자들은 그 과학자가 표방했던 인식론이나 세계관——좁은 의미의 과학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을 과학자의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뉴턴 체계를 파악할 때에는 뉴턴이 표방한 인식론을 고려하지 않으며, 케플러의 천문학 이론을 재구성할 때에는 그의 세계관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반면 과학사자들은 16세기에 활동한 파라켈수스에 대해서는 그의 의학 화학 이론과 신비주의적 지식관을 뭉뚱그려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관행이다.

이 논문의 앞 부분에서는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뒤, 그의 저술과 활동 가운데에서 그의 지식관과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드러난 의문을 추적하면서,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이 어떠한 지식관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가진 사회적 함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적·인문주의적 학문 전통이 지배적이던 당대의 상황에서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이 이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적 자연연구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해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이 당대의 상황에서 가졌던 의의를 재조명하고, 파라켈수스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

(1) 대우주-소우주 교류로서의 경험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우주(macrocasm)와 소우주(microcosm) 간의 類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플라톤주의, 그노시스주의, 카발라 등 고대 말의 신비주의적 사조들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대우주-소우주 유비는 단순히 마술적 혹은 전근대적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우주-소우주 유비는 독특한 인식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소우주(곧 인간) 안에는 대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이미 담겨있으며, 대우주와 소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동일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참된 지식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交流(correspondence)라고 부르는데, 파라켈수스에게 경험이란 다름아닌 이

9) 이에 대해서는 아래 3장 1절을 볼 것.

교류, 즉 대우주의 인식대상과 이에 대응하는 소우주적 등가물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다.¹⁰⁾

파라켈수스에게 경험이란 사물의 외관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사물에 내재된 본질, 즉 ‘스키엔티아’(scientia)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스키엔티아’는 대상 내에 존재하는 德性(virtue)으로서, 각각의 개별적 사물들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완전하게 되어가는 메카니즘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下劑로 사용되는 약초 안에서 어떻게 便痛의 작용을 수행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약초의 ‘스키엔티아’이며, 배나무에서 다른 과일이 아닌 배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곧 그 배나무의 ‘스키엔티아’이다.

대상을 확실하고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의 ‘스키엔티아’를 안다는 것이다. 관찰자는 대상과의 합일, 곧 대우주-소우주 교류를 통해 ‘스키엔티아’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획득되는 대상에 대한 직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이해가 바로 경험이다.¹¹⁾

파라켈수스에게 경험이란 사물에 대한 일회적 관찰을 통해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다. 그는 경험과 ‘엑스페리멘툼’(experimentum)을 대비시키는데, 경험과 달리 ‘엑스페리멘툼’으로는 주로 시각적 관찰을 통해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일례로 어느 약초가 하제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은 일회의 실험이나 관찰, 즉 ‘엑스페리멘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그 이상의 과정이다.¹²⁾ 파라켈수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술 가운데 하나인 *Labyrinthus Medicorum* (1537-1541)에서, “당신이 스카모니아 (하제로 사용되는 약초)로부터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엿듣는다면, 그 지식은 스카모니아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스키엔티아’는 신이 그것에 부여한 대상 안에 담겨있다. 경험은 ‘스키엔티아’가 테스트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지식이다.”¹³⁾ “자연 그 자체가 의학서이다. 마치 당신이 거울 속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볼 때만큼 확실하게 자연에 있는 당신의 모든 ‘스키엔티아’를 재발견해야 한다.”¹⁴⁾ 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파라켈수스는 실재하는 대상과 지식 사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하제로 쓰이는 약초에 내재된 덕성이 곧 그 약초의 ‘스키엔티아’이며, 이 ‘스키엔티아’ 자체가 곧 어떻게 변통을 시키는가에 관한 참된 ‘지식’이다. 결국 참된 지식은 대상 안에 이미 ‘덕성’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으며, 경험이란 곧 대상-대우주에 내재된 지식(덕성)과 인간-소우주에 잠재된 지식간의 교류인 것이다.¹⁵⁾

10) J. R. Partington, ed., *A History of Chemistry*, vol. 2(London: Macmillan, 1961), p. 127. 고대 말 그노시스주의의 대우주-소우주 유티와 파라켈수스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Pagel, *Paracelsus*, pp. 204-210을 참조할 것. 신플라톤주의, 카발라 등이 파라켈수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King, *The Growth of Medical Thought*, pp. 92-100을 참조할 것.

11) 여기서 ‘경험’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파라켈수스가 독일어로 ‘Erfahrung’, 라틴어로 ‘experientia’라고 했던 것이다.

12) 이상 경험, ‘엑스페리멘툼’, ‘스키엔티아’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Pagel, *Paracelsus*, pp. 50-51, 59-60; Hannaway, *The Chemists and the Word*, p. 26을 참조할 것.

13) Paracelsus, *Labyrinthus Medicorum*. (Sudhoff, ed., *Theophrast von Hohenheim, genannt Paracelsus: Sämtliche Werke*, 14 vols., München, 1922-1933, vol. 11, p. 192. Pagel, *Paracelsus*, p. 60 으로부터 재인용)

14) Paracelsus, *Von den Podagrischen Krankheiten und was ihnen anhangig*. (Sudhoff, ed., 앞의 책., vol. 1, pp. 354-355. Jolande Jacobi, ed., *Paracelsus: Selected Writi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1, p. 56 에서 재인용)

(2) 아르케우스(Archeus)와 外徵

대우주-소우주 교류 개념을 중심으로 한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外徵(signature) 개념에 의해 보완된다. 외징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라켈수스의 물질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라켈수스는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구분하는 고대 그리스 이후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물질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는 플라톤 이래 서구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다. 파라켈수스가 택한 관계설정은 신플라톤주의적 방식이었다. 플로티노스를 비롯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순수하고 완벽한 정신적 존재인 신 또는 一者(the One)와 물질적 존재인 질료 사이에 일련의 반정신-반물질적 존재들을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일자에서 멀어질수록 정신성은 떨어지고 물질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라켈수스는 신으로부터 제일질료(prime matter)가 流出(emanation) 되고, 이로부터 수은, 염, 황의 세가지 원리가 유출되며, 다시 이로부터 불, 흙, 공기, 물의 네가지 질료가 유출된다고 보았다.¹⁶⁾

그런데 이 네가지 질료는 순수한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고, 신으로부터 유래한 일차질료인 '아르케우스'(Archeus)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아르케우스'는 신으로부터 유래한 반정신-반물질적인 —— 그러나 그 물질성은 극히 미세하며 정신적 성질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 존재로서, 질료와 결합하여 각각의 개별적 사물들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끔 하며, '스키엔티아'의 저장고로서 기능한다. '아르케우스'는 흔히 생명력, 참된 원소 혹은 참된 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르케우스'는 따로 분리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숨겨진(occult) 존재이지만, 사물의 외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이 곧 외징이다.¹⁷⁾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외징 개념을 *De Natura Rerum* (1537-1541)에서 자세히 설명한다.¹⁸⁾ 여기서 그는 '아르케우스'만이 외징을 남길 수 있다고 서술하지 않는다. 그는 사물에 외징을 남길 수 있는 세가지 존재로 "사람, '아르케우스', 그리고 별들"을 꼽는다.¹⁹⁾ 이중에 사람이 외징을 남긴다는 것은 약병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유대인이 노란색 표지를 다는 식의 의식적인 표지행위를 말하므로, 자연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자연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르케우스' 및 별들에서 유래한 외징이다. 예를 들어 광물에는 '아르케우스'와 별들 양쪽에서 유래한 외징이 있다. '아르케우스'의 외징은 곧 광물의 색깔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물의 색깔에 따라 그

15) 대상과 지식, 혹은 사물과 언어 사이의 간극을 설정하지 않는 지식의 조직 원리를 푸코(Michel Foucault)는 「말과 사물」에서 르네상스적 '에피스테메'(episteme)라고 이름붙인 바 있다. 고대 그리스 이후 언어관의 변천을 추적한 것으로 Brian Vickers, "Analogy versus Identity: the Rejection of Occult Symbolism, 1580-1680", Brian Vickers, ed., *Occult and Scientific Mentalities in the Renaiss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95-133이 있다.

16) King, *The Growth of Medical Thought*, 1963, pp. 96-97.

17) Pagel, *Paracelsus*, pp. 82-89; Giancarlo Zanier, "Platonic Trends in Renaissance Medicin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48 (1987), p. 515; Partington, ed., *A History of Chemistry*, pp. 128-129. 이러한 외징 개념과 그노시스주의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Pagel, *Paracelsus*, p. 204을 볼 것.

18) Paracelsus, *De Natura Rerum*: Arthur Edward Waite, ed., *The Hermetic and Alchemical Writings of Paracelsus*, 2 vols. (London: James Elliot & Co., 1894), Vol. 1, pp. 171-194; Ebrnhard Aschner, ed., *Paracelsus: Sämtliche Werke*, 4 vols. (Jena: Verlag von Gustav Fischer, 1926-1932), vol. 3, pp. 283-313.

19) Waite, ed., 앞의 책., vol. 1, p. 171.

광물을 분류할 근거를 가진다. 한편 별들에서 유래한 외징은 땅에 자취를 남긴다. 따라서 우리는 땅을 직접 파보지 않고서도 지표면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어떤 광물이 어느정도의 깊이에 얼마만큼 묻혀있을지를 탐색해낼 수 있다. 파라켈수스는 이와 관련하여 *De Natura Rerum*에서 광맥 탐사법을 자세히 서술해놓기도 하였다.²⁰⁾

외징과 '아르케우스'는 의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르케우스'는 위를 비롯한 체내의 각 기관에 존재하여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病原(entia)의 침입으로 인해 '아르케우스'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아르케우스'는 질병을 앓는 인간이나 동물의 몸에 외징을 남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는 피나 오줌을 관찰함으로써 질병을 감별할 수 있다. 또한 도살된 동물의 간을 관찰하여 그 동물이 식용해서는 안될 질병에 걸렸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²¹⁾

이처럼 외징은 가시적(可視的) 세계의 탐구를 통해 비가시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아르케우스'와 숨겨진 상호작용의 그물망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외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외징을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숨겨진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파라켈수스에게 외징은 호두를 뇌와 연관시키고 月長石을 달에 연관시키는 단순한 민간마술의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 그의 외징 개념은 경험적 자연연구를 고무하는 가설 형성을 돕는 역할을 했다.

(3) 지식관의 신학적 근거

한편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그의 신학적 교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는 同形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라켈수스는 우주에는 신에서 기원한 '자연의 빛'(light of nature)과 '은총의 빛'(light of grace)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때 자연의 빛은 자연의 책(Book of Nature)과의 교류를 통해 얻으며, 은총의 빛은 성서(Book of Scripture)를 통해 얻는다. 자연의 빛은 신의 은혜와 자비를 입증하는 聖父의 선물로서, 예수 탄생 이전까지 인류를 인도하였다. 반면 은총의 빛은 예수와 함께 도래한 것이다. 기독교도는 은총의 빛에 의해 밝혀진 정신과 목적에 따라 자연의 빛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은총의 빛과 자연의 빛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은총의 빛과 자연의 빛의 상호보완관계는 이성과 상상(imagination)의 상호보완관계에 대응된다. 은총의 빛을 밝히는 인간의 힘은 이성이며, 자연의 빛을 밝히는 힘은 상상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정형화된 논리적 추론을 행하는 인간의 이성과는 무관하다. 상상은 '아르케우스'를 움직이는 힘으로서, 마치 태양이 우주를 비취 우주의 사물이 형성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처럼 신체를 비취 신체의 각 기관들이 형성되고 움직이도록 한다. 또한 상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 磁氣의 인력을 작용함으로써 타인이나 자연물을 바꿔놓거나 새로 생성시킬 수도 있는 인간의 극히 강력한 잠재력의 원천이다.²²⁾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의 획득은 교류를 통해 달성된다. 그런데 이 교류는 자연의 빛이 상상에 작용함으로써 사물의 덕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로서 대우주-소우주 교류로서의

20) 같은 책, pp. 181-188.

21) 같은 책, p. 189. '아르케우스'의 병리학적 지위에 대해서는 Pagel, *Paracelsus*, pp. 105-108을 참조할 것.

22) 은총의 빛과 자연의 빛, 이성과 상상, 그리고 상상과 '아르케우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Hannaway, *The Chemists and the Word*, pp. 5-8, p. 59; Pagel, *Paracelsus*, pp. 53-59, 111-112, 121-125; Brooke, *Science and Religion*, p. 67; King, *The Growth of Medical Thought*, p. 100을 참조할 것.

경험 개념과 '아르케우스', 상상 등이 신학적으로 뒷받침된다. 그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인 *Archidoxis* (1525-1527)에서 파라켈수스는 신비(*mysteria*) 개념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있지 않으며 믿음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고 인간의 이성 —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 에는 전혀 기반해있지 않으므로, 아예 이 땅에 [이성]을 내던져 버리고 자연의 신비들을 연구하도록 하자. 이것이 중국에는 진리의 기초를 인준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자연의 빛]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고한 자비를 다하도록 가르쳐주는 신비들[은총의 빛]도 연구하도록 하자.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품의 보물은 바로 전자[자연의 신비들]이다. 이같은 기반 위에서 우리는 실험에 입각하여 우리의 의학을 이끌어내왔다."²³⁾ "여기서 신학자들의 무지한 멍청함이 비롯된다. 그들은 신의 말씀을 그들 자신의 자만심과 탐욕에 따라 왜곡한다. 결국, 명백하게 [자연의] 신비들에 기반해 있지 않은 이성에 대하여, 우리는 가치를 두거나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²⁴⁾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중세적 또는 근대적 기준의 합리주의와는 거리를 둔 것이었다. 그에게 참된 지식이란 자연적 대상과의 합일, 즉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직관적이고도 완벽한 지식이었으며,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힌트는 외징의 형태로 자연물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연물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참된 지식은 신의 은총을 통해 얻어지는 참된 깨달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었다.

3.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

(1) 기존의 해석

이상을 통해 본 바와 같이, 파라켈수스에게 참된 지식을 얻어내는 '경험'은 대우주-소우주 교류 이면서 동시에 신이 부여한 자연의 빛을 밝혀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은 그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으며, 파라켈수스를 마술과 과학의 전이지대에 있는 인물로 보는 통상적 해석의 근거가 되어왔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문자언어를 통한 지식의 전달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527년에서 이듬해까지 바젤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표한 *De Gradibus et Compositionibus*에서, 파라켈수스는 완전한 지식이 문자언어를 통해 전수될 수 있다는 관념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지위, 능숙한 언변, 언어적 능력, 많은 양의 독서 등은 대단한 장식품이기는 하지만 내과의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내과의에게는 다루는 주제와 신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면식이 필요하다."²⁵⁾ 심지어 파라켈수스의 저술에서는 "의학의 기예(*art*)는 상속되거나 책에서 베낄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찾아볼 수 있다.²⁶⁾ 문자언어에

23) Paracelsus, *Archidoxis* (Waite, ed., 앞의 책, vol. 2, p. 5; Aschner, ed., 앞의 책, vol. 3, p. 3).

24) Waite, ed., 앞의 책, vol. 2, p. 9.

25) Paracelsus, *De Gradibus et Compositionibus*. (Waite, ed., 앞의 책, vol. 2, p. 170; Ashner, ed., 앞의 책, vol. 3, p. 381.)

26) Paracelsus, *Von allen offenen Schäden, so aus der Natur geboren werden, sieben Bücher*. (Sudhoff, ed., 앞의 책, vol. 6, p. 289. Jacobi, ed., 앞의 책, p. 56에서 재인용)

대한 이같은 불신은 흔히 그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의 귀결로 해석되어왔으며, 파라켈수스의 전근대성 또는 마술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파라켈수스가 근대적인 의학 및 화학의 출발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논자들도, 신비주의적인 지식관이 근대과학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예로, 해너웨이(Owen Hannaway)는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이 문자언어를 통해 자연을 객관적으로記述할 수 있다는 관념을 봉쇄하였다고 주장한다. “[파라켈수스에 의해 주장된] 이같은 지식의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기반은,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닐지라도—— 심각하게 제한하였다. … 인간은 아마도 이성의 지시에 따라 실행을 결정하는 자연 이론을 명석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 자연의 힘에 대한 지식은 더구나 글로는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²⁷⁾

파라켈수스 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있는 파겔(Walter Pagel) 역시 이같은 견해를 공유한다. 파겔은 파라켈수스에게 “대상과의 합일은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얻는 왕도”였다는 이유로 “지식 일반의 획득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있어 파라켈수스는 중세적 혹은 근대적 합리주의와 결별한 신비적·직관적 지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책은 대상과의 직접 교류를 통한 완전한 이해, 즉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므로, 자연히 파라켈수스는 책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봤다는 것이다.²⁸⁾ “명백하게 책은 그러한 지식[교류로서의 경험을 통한 참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책을 통한 학습에 대한 반대는 소우주로서의 인간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²⁹⁾

저명한 르네상스 과학 연구가인 비커스(Brian Vickers)는 파라켈수스가 화학적 분석의 선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일견 파라켈수스가 근대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심적 세계는 아직 상징과 교류의 세계였다”고 지적한다.³⁰⁾ 코헨(I. Bernard Cohen) 역시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은 잘못된 연구 ‘방법’으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그를 진정한 개혁자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틸만(John Maxson Stillman)이 1920년에 간행한 저술을 인용하면서 스틸만의 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그[파라켈수스]의 목표는 의학을 생리학적 생물학적 기반 위에 정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으며, 그의 유비적인 추론이나 대우주-소우주의 환상적인 철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아무런 귀결도 낳지 못하였다.”³¹⁾

실상 파라켈수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그의 생전에 에라스투스(Erastus), 멜란히톤(Melanchton), 고델만(Johann Georg Godelmann) 등의 비판자들이 파라켈수스의 비합리적이며 마술적인 측면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이후에도 많은 비판자들이 동일한 이유로 파라켈수스를 비판하였다. 심지어 파라켈수스의 知的 후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반헬몬트(Joan Baptista Van Helmont : 1579-1644) 역시, 말년에 이르러서는 파라켈수스의 대우

27) Hannaway, *The Chemists and the Word*, pp. 59-60.

28) Pagel, *Paracelsus*, p. 50.

29) 같은 책, pp. 60-61.

30) Brian Vickers, “Critical Reactions to the Occult Sciences during the Renaissance”, Edna Ullmann-Margalit, ed., *The Scientific Enterprise* (Dordrecht,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p. 65.

31) I. Bernard Cohen, *Revolution in Sc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187.

주-소우주 개념 등을 비판하였다.³²⁾

(2) 파라켈수스의 양면성 : 책을 읽으라는 파라켈수스

그러나 파라켈수스가 문자언어를 이용한 지식의 소통가능성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파라켈수스 자신이 문자언어를 통한 지식의 전달에 대하여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저술 속에서 책을 집어던지라고 요구하는 파라켈수스와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파라켈수스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저술에는 책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구절 못지않게 책을 읽으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책을 통한 학습이 전혀 중요치 않은 것처럼 말했던 바젤 대학의 강의록 *De Gradibus et Compositionibus*의 다른 부분에서는 책을 읽으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므로,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물의 본성에 관해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실험을 통해 상기해내라.”³³⁾

그는 자연의 빛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은 책의 경우에는 비난을 유예하고, 대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한다. 자신이 저술한 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그의 책이 직접 경험을 통해 획득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바젤의 지도자들로부터 넉넉한 보수로 초빙받아, 매일 두 시간씩 공개리에 실재적이고 이론적인 의학, 자연학(physics), 외과의술에 대한 나의 저서들을 열심히 해석한다. 이것은 청중들에게 크게 이득이 된다. 나는 유행을 좇아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또는 또다른 누군가의 책들을 주워맞추지 않았고, 위대한 스승인 경험과 노동에 의해 그것들을 저술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입증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하여 실험과 이성인 권위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³⁴⁾ “당신이 내과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학을 그것의 원천[자연]에서 찾아라. ... 그 주제[의학]에 관해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공부해라! 자연의 빛과 일치하는 책은 힘과 지속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연의 빛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입구도 출구도 없는 미로와 같다.”³⁵⁾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면, 파라켈수스가 이론을 경시하고 실행(practice)에 치중하였다는 주장은 편견에 가까와보인다. 그는 회색 이론 따위는 집어치우고 생생한 현실과의 교류에 몰두하자는 신비주의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다만 이론이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과 실천은 함께 하나를 형성해야 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또한 일종의 사색적 실천이기도 하며, 활동적인 실천보다 더 또는 덜 진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사변이 실행에 기반을 둔 발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양쪽 모두 맞거나 양쪽 모두 틀린 것이다. ... 그러므로, 이론과 실행은 모두 경험에 의거해야 한다.”³⁶⁾

32) Partington, ed., *A History of Chemistry*, vol. 2, pp. 120-121. 반 헬몬트의 파라켈수스 비판에 대해서는 Debus, *The Chemical Philosophy*, pp. 295-343; Pagel, *Joan Baptista Van Helmo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할 것.

33) Paracelsus, *De Gradibus et Compositionibus*. (Waite, ed., 앞의 책, vol. 2, p. 177.)

34) Paracelsus, *De Gradibus et Compositionibus*. (Waite, ed., 앞의 책, Vol. 2, p. 170.)

35) Paracelsus, *Opus Paramirum*. (Sudhoff, ed., 앞의 책, vol. 9, p. 70. Jacobi, ed., 앞의 책, p. 67에서 재인용)

36) Paracelsus, *Von Blattern, Lähme, Beulen, Löchern und Zittrachten der Franzosen und ihres gleichen, inhaltend zehn schöne Bücher*. (Sudhoff, ed., 앞의 책, vol. 6, p. 314. Jacobi, ed., 앞의 책, p. 51-52에서 재인용)

결국 우리는 파라켈수스가 문자언어나 책 일반을 불신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라켈수스가 불신하였던 것은 선대의 논자들—— 갈레노스, 히포크라테스 등——이 남겨 당대까지 가르쳐진 책들, 즉 그가 보기에 경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식을 담은 책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에게 고대인과 자신 사이의 차이는 명백했다. 자신의 책은 경험에 입각해 있으므로 가치와 실용성을 가지지만, 고대인의 것은 경험에 입각해 있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연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이 방법은 고대인들의 과정과 방법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만물의 여왕이며 이것에 의해 모든 기예들(arts)이 입증되어야 할——에 단단하게 기반하고 있다.”³⁷⁾

파라켈수스의 비판은 고대의 이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당대의 내과의와 약종상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기도 했다. 그는 내과의와 약종상들을 고대인의 권위에 기대어 부도덕한 축재를 계속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고대의 방법들을 따름으로써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많은 부와 신용과 명성을 얻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러한 거대한 것들을 얻은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내과의와 약종상들을 어둠의 무리들이요 강도와 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말하겠 다. … 부자가 아닌 자들은 즉각 건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자들〔내과의와 약종상들〕은 그들의 참고서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치료제나 도움이 될만한 것이 적혀있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³⁸⁾

고대의 이론에 대한 불신은 의학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파라켈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퍼부었다. 그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경험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이 부여한 자연의 빛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De Mineralibus* (1526)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알베르투스, 아비케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알베르투스, 그리고 아비케나 및 그들의 공모자들은 별판의 독초에 불과하다. 이 적들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고, 자연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체계를 가진 또다른 유해한 철학자들을 낳았다. 경험의 모든 빛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철학은 자연의 빛을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³⁹⁾

파라켈수스는 책을 자연의 빛에 조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고, 양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자연의 빛에 입각하여 저자의 경험을 담고 있는 책과, 그렇지 못하여 아무런 쓸모없는 책이 있다는 것이다. 파라켈수스가 자신의 책이 자연의 빛과 일치하며 따라서 자신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했다는 사실은, 파라켈수스가 신비주의적 지식관으로 인해 문자언어를 통한 지식의 전달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으며 이것이 파라켈수스의 마술적·전근대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통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3) 저술 출간활동

파라켈수스는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서술해 놓은 책의 경우 이를 통해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음을

37) Paracelsus, *Archidoxis*. (Waite, ed., 앞의 책, vol. 2, p. 9.)

38) Paracelsus, *Archidoxis*. (Waite, ed., 앞의 책, p. 4.)

39) Paracelsus, *De Mineralibus*. (Waite, ed., 앞의 책, vol. 1, p. 244.)

인정했다. 그는 문헌을 통한 명료한 서술과 의사소통을 꺼려하는 密敎的 연금술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중 일부는 생전에 출간되었고, 나머지는 그가 죽을 때 手稿 상태로 그의 제자인 오포리누스(Oporinus)에 넘겨져 16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 그가 남긴 책은 364권 내외로 추산되는데, 현대에 편찬된 독일어 본 전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⁴⁰⁾

특히 주목할만한 일은, 파라켈수스는 라틴어가 지식인 사회에서 유럽 표준어로 통용되고 있던 16세기 전반에 이미 자국어인 독일어로 —— 정확히는 스위스 지방의 방언으로 —— 저술하여 출간했다는 사실이다.⁴¹⁾ 파라켈수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대학들에서 수학하여 라틴어에 능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저술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장의 언어로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스위스의 아인지델른 출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도 나의 거친 말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나의 저술들은 나의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예와 경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⁴²⁾

파라켈수스가 秘學的 연금술의 전통에 머물러있는 사람이었다면, 생전에 자신의 저술을 —— 그것도 라틴어도 마다하고 독일어로 —— 출간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활발한 독일어 저술활동은, 그가 학창시절을 제외하고는 대학이라는 주요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의 대립은 파라켈수스로 하여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던 인쇄출판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출판물을 통해 직접 보급하고자 하는 생각을 고무했을 것이다. 16세기 당시 유럽 인쇄업의 중심이었던 안트워프의 플랜틴 인쇄공방은 프로벤(Froben)을 비롯하여 바젤에 있던 인쇄인 집단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것인데, 이들은 파라켈수스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특히 프로벤은 그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⁴³⁾ 파라켈수스가 잠깐 동안 이나마 바젤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도 프로벤과의 친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파라켈수스는 자신의 저서의 출간이 방해받을 경우에는 출판의 자유와 공개적 논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파라켈수스는 1530년에 매독의 치료제로 수은 처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행하려다가 푸거(Fugger) 가문에 의해 출간을 방해받았다. 당시 널리 알려져있던 매독 치료제인 유창목(guaiacum)의 거래를 푸거 가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⁴⁾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만약 학제가 나에 대항하여 뭔가 말할 것이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 당신들에게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

40) 파라켈수스의 저술 출간에 대해서는 Partington, ed., *A History of Chemistry*, vol. 2, pp. 123-124를 참조할 것.

41) Jan V. Golinski, “Chemistry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Problems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avid C. Lindberg & Robert S. Westman, eds., *Reappraisals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374.

42) Paracelsus, *Das erste Buch der Gross Wundarznei*. (Sudhoff, ed., 앞의 책, vol. 10, p. 199. Jacobi, ed., 앞의 책, p. 3 에서 재인용)

43) Elizabeth L. Eisenstein,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국역 전영표 옮김, 『인쇄출판문화의 원류』, 법경출판사, 1991, 178-187쪽.

44) Pachter, *Paracelsus*, pp. 177-183. 당시 인쇄출판계의 상황과 검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Paul F. Grendler, “Pringing and Censorship”, Charles B. Schmitt & Quentin Skinn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25-53.

판물을 재판하거나〔출간을〕 불허할 권리가 없다.”⁴⁵⁾ 이처럼 파라켈수스에게 저술과 출간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으며, 그는 저술 출간을 대학 중심의 의사 사회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4) 의학·화학서의 정교한 서술양식

파라켈수스가 저술을 출간했다는 사실보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그의 저술에서 드러나는 정교한 서술이다. 그의 형이상학적·신학적 저술에는 불명료하거나 상호모순적인 부분도 적지 않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화학약품이나 의약품의 제법을 서술한 실용적인 매뉴얼들은 매우 명료하게 서술되어있다. 일례로 파라켈수스는 *Process und Art Spiritus Vitrioli* (1526-1527)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불치로 여긴 간질, 통풍 등의 질환들을 자신은 鐵丹(colcothar)으로부터 추출한 황의 精氣(spirit)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선, 황산으로부터 정기의 추출은 세워진 증류병 안에서 강력한 불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그래서 정기가 깨끗한 증류기에 몰아넣어지고, 4일 밤낮 동안 화로 안에 남겨진 것은 매우 능숙하게 반사로(reverberatory)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황산의 정기를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철단은 강한 나무나 석탄불 위에서 3일간 화로 안에 있는 유리병(phial)을 통해 증류되어, 수집기에 철단 1파운드당 진홍색으로 물든 3vj.가 나올 때까지 증류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해진 다음에는, 알칼리가 잔여물(caput mortuum)로부터 추출되어야 하는데, 알칼리가 네번 또는 다섯번 용해되면 옹고될 것이다. 이리하여 황산 안에 있는 세가지 것들이 추출되고 분리될 것이다.”⁴⁶⁾

파라켈수스의 의학·화학 매뉴얼 가운데에는 더욱 정량적으로 서술되어있는 것들이 많다. 그가 저술한 제조법·처방전으로 가장 유명한 것들 가운데 하나로서 1526-27년에 저술된 *Liber Praeparatinonum*을 보기로 하자. 이 저작은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번째 부분은 안티몬, 은이 함유된 백철광(marcasite), ‘cachimia’, 활석(talc), ‘thutia’, 아연광(calamine), 일산화납(litharge) 등 밝은색의 광물들을 이용한 의약, 두번째는 혈석(bloodstone), 비소, 황, ‘saxifrage’, 석유향(orpiment) 등 붉은색 계통의 광물을 이용한 의약, 세번째는 보석류를 이용한 의약, 네번째는 염을 이용한 의약, 다섯번째는 금속을 이용한 의약을 다루고 있다. 서술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특정한 의약재료를 제시한 뒤, 그것의 대략적인 적용질환을 열거하고, 각각의 질환에 대한 조제법을 상세하고 정량적으로 서술한다. 이같은 서술방식은 독일어 전집 기준으로 60페이지 가량인 *Liber Praeparatinonum*의 전체에 걸쳐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황에 관하여. /황의 덕성(virtue)은 극히 급성의 농양(imposthume)과 천식의 경우에 적용된다. 황의 덕성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농양에는 녹막염, 흑사병,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포함된다. /다음은 극히 급성의 궤양에 대한 조제이다. /신선한 황, 1 파운드, 철단, 용해된 염 각 ½ 파운드,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승화(sublimation)에 의해 환원시켜라. 승화되자마자 다시 가하기를 반복하여, 세번 승화시켜라. 신선한 황은 단편들로 응집하며, 녹지 않은 채로 있다. /천식에 대한 조제. /용해된 황, 1 파운드. /紫檀 썰은 것, 사이프러스나무 썰은 것, 소나무 썰은 것 각각

45) Pachter, *Paracelsus*, p. 183 에서 재인용.

46) Paracelsus, *Process und Art Spiritus Vitrioli*. (Waite, ed., 앞의 책, vol. 2, p. 231)

황산 무게만큼./충을 지어 정돈하라. 반사로의 불로 환원시키고, 마지막으로 알칼리에 넣어라./이 알칼리 10 온스와/沒藥(myrrh) 5 온스를 승화시켜라.”⁴⁷⁾

파라켈수스는 이처럼 조제법을 설명한 뒤에 증세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를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같은 서술은 당시 의학과 화학(연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다. 파라켈수스의 매뉴얼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명료한 서술은, 자신의 비법을 밝히기를 꺼리는 연금술사의 이미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파라켈수스는 일견 신비적이고 비학적인 지식관의 소유자인 듯 보이기도 하나, 그의 활동이나 저술을 살펴보면 그가 도리어 대학 중심의 의사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조제법과 처방전을 명료하고 자세하게 서술·출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처럼 파라켈수스가 천명한 지식관의 신비주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에 입각한 책에 대한 파라켈수스의 높은 평가, 그의 저술 출간활동 및 저술의 정교한 서술 등에서 신비주의적 지식관과는 상반되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파라켈수스의 양면성은 그의 자연연구와 지식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실마리 구실을 한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파라켈수스 연구자들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진전시켜보기로 하자. 파라켈수스의 신비주의적 지식관과 문자언어에 대한 불신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마술성 또는 전근대성을 부각시키기는 논자들은, ‘근대적’ 과학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대적’ 지식관을 표방해야 한다는 가정을 암암리에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가정의 타당성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것은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이른바 ‘근대적’인) 지식관을 표방해야 한다는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휘그적(Whiggish) 역사관의 소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여기서 우리는 파라켈수스의 지식관과 의화학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볼 수 있다. 우선 그가 표방한 신비주의적인 지식관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의 의학 및 화학지식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무엇보다도 경험적 자연 연구를 고무하고 정당화하는 일종의 정당화 담론(legitimizing discourse)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의화학이 당시까지 대학으로부터 무시되던 민간의 경험적 지식을 집대성하고 있었으며 그 지식을 체계화한 그의 의학·화학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레노스의 이론과 결부된 스콜라적 지식관과 명백하게 대립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정당화 담론이 필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파라켈수스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내과의나 약종상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외과의, 민간 약제사, 주술사, 산파 등과 활발하게 접촉하였고, 이들로부터 많은 지식과 치료법을 배웠다.⁴⁸⁾ 당시 대학 중심의 지식인들은 민간에서 수집된 경험적 지식들을 비천한 것으로 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47) Paracelsus, *Liber Praeparationum* (Waite, ed., 앞의 책, vol. 2, p. 231). 현대의 화학에서 승화(sublimation)란 고체가 바로 기체로 상변화하는 과정을 가리키지만, 근대 이전에는 재료를 가열하여 수증기 섞인 기체를 낸 뒤 다시 이를 냉각 응고시키는 과정을 승화라고 불렀다.

48) 당시 이들간의 사회적 지위 차이에 대해서는 Arturo Castiglioni, *A History of Medicine* (New York: Jason Aronson, 1975) chap. 16을 참조할 것.

않았다. 그러나 파라켈수스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하층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다. “내과의는 그가 알아야만 하고 완전히 습득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대학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그는 가끔 노파, 집시, 마술사, 여행자, 그리고 모든 부류의 시골 사람들과 일반인들, 그리고 그밖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 문의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대학에 있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⁴⁹⁾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經驗醫(empiricist)로 분류된다. 경험이란 대학 이외의 곳에서 지식을 획득하여 지적 권위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한 의사, 혹은 갈레노스주의 의학 처방이 실패할 때 새로운 약을 제조하여 시험하려는 의사에 대한 명칭이었다. 파라켈수스는 자신을 후자의 의미에서의 경험의로 자처했으며, 자신이 경험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⁵⁰⁾

파라켈수스가 민간의 지식들을 엮어낸 이론체계가 갈레노스 체계와 크게 상충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갈레노스나 아비케나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노출하였으므로, 갈레노스 체계를 간직하고 있던 대부분의 내과자들은 파라켈수스의 의학·화학을 극력 배척하였다. 애초에 파라켈수스로서는 기존의 확립된 지적 권위에 기대거나 스콜라적 논쟁을 통해 자신의 올바름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아비케나 등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그가 대상과의 합일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식관을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이때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비롯한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지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파라켈수스는 이미 유랑학생 시절에 튀빙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오캄의 철학적 전통을 이어 예정설을 신봉하는 — 후일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 세력과 플라톤과 둔스 스코투스의 전통을 이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을 목격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플라톤주의 및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에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1510년대 중반에는 플라톤 및 둔스 스코투스의 전통이 강하던 페라라 대학에서 피치노(Marsilio Ficino)와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를 지적 동료로서 접하게 되었다(이들은 파라켈수스에 칭찬을 받은 드문 학자들이다). 이후에도 그는 각지의 유명한 연금술사 등과 교류하면서 여러 이단적 전통을 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플라톤주의, 그노시스주의, 카발라 등의 전통을 수용한 그는 대우주-소우주 교류로서의 경험, ‘아르케우스’, 외징, 자연의 빛-은총의 빛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관적 교설을 구성할 수 있었다.⁵¹⁾

이같은 지식관으로 인해, 파라켈수스의 주장은 단순히 갈레노스의 의학 이론을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하자는 제안 이상의 함축을 가지게 되었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기존의 대학 중심의 지적 전통 전체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14세기 이후 논리학과 자연철학은 대학의 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49) Paracelsus, *De Occulta Philosophia*. (Sudhoff, ed., 앞의 책, vol. 14, p. 541. Jacobi, ed., 앞의 책, p. 57에서 재인용)

50) 경험의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에 이미 체액에 작용하지 않고 특정한 기관이나 질병에 직접 작용하는 몇몇 처방이 알려져 있었으며 로마시대에 켈수스(Celsus)가 이를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파라켈수스가 활동할 당시 대학교육을 받은 의사들 가운데 경험의학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학의 학자들은 이를 경멸하였다. Pachter, *Paracelsus*, pp. 51-58.

51) 이상 파라켈수스가 고대 신비주의의 전통을 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Pachter, *Paracelsus*, chap. 3-4를 참조할 것.

16세기 대학에서 의학 공부의 주요한 기반으로 논리학, 자연철학, 그리고 점성술의 세가지가 꼽힐 정도였다. 실제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논리학, 자연철학, 의학의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통례였다.⁵²⁾ 이중 자연철학이나 의학은 적어도 논리학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레노스의 이론체계를 여타의 체계로 단순히 ‘바꿔치기’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 특히 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 자연철학들과 비갈레노스적 의학이론들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들은 단순히 갈레노스의 체계에 염증을 느낀 지식인들의 사변적인 탈출구 이상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경험연구를 중시한 파라켈수스의 체계와는 달리 이들의 시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⁵³⁾

파라켈수스의 지식관과 특히 상충하는 것은 논리학이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에 따르면, 지식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대상과의 신비적 합일의 결과로 얻어지므로 논리학은 의학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데 전혀 필요치 않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필수교양인 논리·문법·수사의 三學(trivium) 전체가 적어도 경험적 자연 연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셈이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14세기 이후 대학에서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되어온 문헌과 논쟁 중심의 연구방법론 전체를 無化시키고 경험적인 자연연구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⁴⁾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경험에 의거하지 않은 지식에 반대하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보다 훨씬 근본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즉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에 따르면 당대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식의 생산 및 사회적 존재양태를 전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의 지식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있던 신학이론 역시 강한 반대학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 자연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자연의 빛을 얻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개인이 신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은총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적 교의와 쌍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교의는 기존 교회 기구의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교의는 신학을 대학의 주요한 방법론(특히 논리학)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시 가장 중요한 신학교육기관이던 대학의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파라켈수스의 의학 화학은 당시까지 대학으로부터 무시되던 민간의 경험적 지식을 종합해 놓고 있었으며, 그 지식을 종합해 놓은 이론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나 갈레노스의 체계와

52) 갈레노스 체계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전염병 등에 대해서는 천상계의 사건이 지구에 미친 영향으로 설명되는 등, 르네상스기까지는 의학과 점성술간의 관계가 밀접했다. Charles H. Talbot, "Medicine", David Lindberg, ed., *Science in the Middle Ag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p. 413-424; Robert S. Westman, "The Astronomer's Role in the Seventeenth Century: a Preliminary Study", *History of Science* 18(1980), pp. 116-121. 당시 대학의 의학교육에 대해서는 Charles B. Schmitt, "Aristotle among the Physicians", Andrew Wear & et al., eds., *The Medical Renaissance of the Six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1-15 참조.

53) Zanier, "Platonic Trends in Renaissance Medicine", pp. 518-519.

54) 스콜라주의와 인문주의는 몇가지 대립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논리적·수사적인) 일반적 방법론의 형성을 강하게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Cesare Vasoli, "The Renaissance Concept of Philosophy", Charles B. Schmi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Cambridge Univ. Press, 1988), pp. 57-74.

대립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저술 가운데 신비주의적 지식관이 피력된 부분은 경험적 연구에 의거한 그의 의학 및 화학에 걸맞는 정당화 담론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학 및 화학은 한편에서는 그의 처방의 놀라운 효과 때문에 높은 인기를 얻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 중심의 학계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비판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계와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파라켈수스는 갈레노스의 의학 및 생리학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업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레노스의 이론에 새로운 이론을 대립시킨 것에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대학과는 멀리 떨어져있던 민간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여 구성된 파라켈수스의 의학 및 화학이 ‘학문’ 또는 ‘철학’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식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개혁되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파라켈수스는 경험적 자연지식을 더이상 비천한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얻어진 참된 지식으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파라켈수스는 대학에서 교육되던 지식의 내용(아리스토텔레스-갈레노스 체계)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생산되고 교육되던 지식의 사회적 성격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파라켈수스가 ‘신비주의적’ 지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여겨지던 구절들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당대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때 그것이 강한 반대학적 함축을 가지고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그의 지식관이 대학의 스킨라적·인문주의적 방법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참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주장을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경험적 지식을 지적,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용을 했던 점 등은 그의 지식관의 성격을 규명할 때 큰 중요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파라켈수스의 과학사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대개 파라켈수스의 체계가 ‘과학과 마술’이라는 두개의 극을 가진 좌표축 위에서 어디쯤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같은 논의는 파라켈수스의 의학 및 화학 뿐만 아니라 지식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의 지식관이 신비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마술적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특히 파라켈수스의 저술들 가운데 문자언어가 참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토로한 듯이 보인 — 또는 그렇게 해석되었던 — 구절들은 그의 지식관의 신비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근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파라켈수스의 저술에 대한 더욱 면밀한 독해는, 파라켈수스가 자연의 빛에 의거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구분하면서 자연의 빛에 근거한 책 — 이를테면 자신이 저술한 책 — 을 읽을 것을 당부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파라켈수스가 참된 지식은 문자언어를 통해 전수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그리고 이같은 믿음은 그의 신비주의적 지식관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통념을 불식시킨다. 많은 논자들은 파라켈수스의 저술 가운데 그의 지식관을 드러내주는 문장들을 저술의 전후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 독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것이 그의 전근대성·마술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여겼으나, 이러한 해석 가운데 적어도 상당수는 부주의한 독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같은 부주의함은 아마도 ‘파라켈수스의 반근대성’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힌 탓일 것이다. 특히 파라켈수스

의 지식관이 신비주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료하게 서술된 다수의 의학 및 화학서를 저술·출간했음을 고려하면,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에 근거하여 그가 단순히 반근대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파라켈수스의 사후 그의 의학 및 화학이 수용된 맥락은 이상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16세기 후반에 파라켈수스의 영향력은 전 유럽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어, 많은 파라켈수스주의 의사나 약제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인 대학의 의학교육에 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지에서는 파라켈수스주의가 의료제도 개혁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⁵⁵⁾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파라켈수스주의에 적대적이어서, 광물성 의약을 이용한 처방들이나 증류를 비롯한 주요 기법들은 대학에 수용된 반면, 강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결코 대학에 수용되지 못하였다.⁵⁶⁾

파라켈수스에 의해 집대성된 화학은 대학의 학자들에게는 계속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크게 변화시킨 인물은 1597년에 *Alchemia*라는 화학교과서를 출간한 리바비우스(Andreas Libavius)였다. 리바비우스의 화학교과서 가운데 경험적인 수준의 지식은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것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표방하고 있는 지식관은 매우 스콜라적인 것이었다. 이같은 지식관의 교체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화학은 대학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1609년에 마르부르크 대학에 최초의 화학 교수직이 신설되는 등 17세기에는 대학에서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의학·화학파 대동소이한 내용이 교육되기 시작하였다.⁵⁷⁾ 화학은 이처럼 파라켈수스와는 동떨어진 스콜라적 지식관이 덧붙여진 상태로만 비로소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받아들여진 것은 ‘파라켈수스주의’라고 보기 힘든 성질의 것이었다.⁵⁸⁾

이와 관련하여 골린스키는 한가지 흥미있는 지적을 던지고 있다. 골린스키에 의하면, 화학이 이전의 모호하고 비학적인 ‘연금술’로부터 벗어나 개방적이고 명료한 상태로 전이했다는 주장은 17세기 화학교과서들의 표준적인 修辭였으며, 리바비우스 역시 이같은 수사를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에 의해 배척받은 비학적인(occult) 수사는, 비법을 노출시키지 않고 제자를 스승에게 묶어두기 위한 길드적 이데올로기의 일면이다. 골린스키는 신비적·폐쇄적 지식관과 개방적 지식관 모두 화학의 실제적인 내용과는 논리적 연관이 없는 정당화 담론이었으며,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정당화 담론의 존재는 각 진영의 사회적 지위의 상이함을 반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⁵⁹⁾

파라켈수스주의는 대학으로부터만 배척된 것이 아니었다.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물활론적·생기론적 경향의 인물들은 17세기 중반 설립된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 과학아카데미 등에서도 대체로 배제되었다. 즉 최초의 ‘근대적’ 과학연구기관은 특정한 지적·정치적 조류를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조류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던 것이다.⁶⁰⁾ 이같은 배제가 일어났던

55) Debus, *The English Paracelsians* (London: Lodbourn, 1965); Debus, *The Chemical Philosophy*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1977).

56) Palmer, "Pharmacy in the Republic of Venice in the Sixteenth Century", pp. 114-117.

57) John Gascoigne, "A Reappraisal of the Role of the Universities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Lindberg & Westman, eds., *Reappraisals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pp. 243-245.

58) Hannaway, *The Chemists and the Word*, chap. 4; Debus, "The Paracelsians and the Chemists", *Clio Medica* 7 (1972), pp. 193-195.

59) Golinski, "Chemistry in the Scientific Revolution" pp. 372-380.

60) Debus, "Science vs. Pseudo-Science: the Persistent Debates". Debus, ed., *Chemistry, Alchemy*

것은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경험적 지식이 덜 객관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파라켈수스주의자들의 지식과 결부되어있던 지식관이 가지고있던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파라켈수스의 경험적인 수준의 지식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의 유용함 때문에—— 결국 대학과 과학학회들에 수용되었지만,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은 대학이나 과학학회들에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파라켈수스주의가 어떠한 연유로 대학이나 과학학회 등에서 부분적으로 배제되고 또 부분적으로 공인받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파라켈수스의 지식관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⁶¹⁾

and the New Philosophy, 1550-1700 (London: Variorum Reprints, 1987), pp. 7-9; P. M. Rattansi, "Paracelsus and the Puritan Revolution", *Ambix* 11 (1963); Rattansi, "The Helmontian-Galenist Controversy in Restoration England", *Ambix* 12 (1964), pp. 1-23.

61) 이같은 선택적인 배제의 원인과 과정을 면밀하게 밝히는 작업은 당대의 정치적·종교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이다. 근대과학의 성립 이면에서 어떤 지적·정치적 경향들이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근대과학과 근대성(modernity)의 관계를 좀더 깊이있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기획은 이성의 탄생의 이면에 '비이성'의 배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근대적 이성의 형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고 시도한 푸코의 기획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